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가족변인 및 보육시설의 효과*

Effects of familial variables and child care quality on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이은해
부교수 박경자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정현숙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Prof. : Rhee, Unhai
Associate Prof. : Park, Kyungja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Assistant Prof. : Chung, Hyunsook

● 목 차 ●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 of children's characteristics, family environment and child care quality in socio-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among dual-worker families. The sample consisted of 138 children aged 5~7 and their parent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correlation analysis, one-way ANOVAs, and stepwise regression were used to analyze data.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temperament and popularity.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peer rejection. Low maternal role conflict and child's age had effects on children's self-perception. Moreover, sex and age of the child, mothers' responsive parenting, number of teachers in the classroom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children's peer rejection.

* 이 논문은 1996~1997년도 삼성복지재단 어린이개발센터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 나라의 주요 사회적 변화 가운데 하나는 여성취업, 특히 취학전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과거보다 많은 수의 영유아가 어려서부터 부모 아닌 타인에 의해 양육되고 많은 시간을 가정 외의 보육시설에서 보내게 되었으며, 아동학자와 관련 전문가들은 어머니의 취업 및 타아경험이 영유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관계로 간주되어 왔으므로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아동의 격리가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모아져 왔다(박경자, 1992; Lerner, 1994).

맞벌이 가족에서 취업모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취업모의 자녀가 경험하는 대리양육 형태, 즉 타아경험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 중 타아가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정서적 발달 측면에서는 타아경험이 모-자녀간 애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가장 큰 관심이 모아졌으며, 일부 학자들은(Belsky, 1986; Belsky & Rovine, 1988) 출생 초기부터의 장시간 타아경험은 영아와 부모간 애착형성에 위험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와 상반된 주장들도 상당수 있어서(Clark-Stewart, 1989;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Phillips & Howes, 1987), 타아경험이 영아의 심리적 건강에 결정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결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즉 타아의 질적 수준만 우수하다면 타아경험 때문에 영유아가 심리적 손상을 입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도 타아의 효과는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가 모두 발견되고 있다. 대체로 타아경험이 많은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높아서 또래지향적임을 나타낸다(Hoffman, 1984). 그러나 출생초기에 타아경험을 한 유아가 공격성과 위축성이 높고 성인에 대한 순응성이 낮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Belsky, 1988; Park & Honig, 1991). 이와 같이 타아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오는 이유는 타아 경험 유무보다 보육시설에서 아동이 실제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에 관련된 타아의 질적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취업모가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의 두 번째 경향은 아동의 일차적 사회화 대항자인 가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어떠한지, 또한 어머니의 취업이 부부의 역할 분담과 심리적 만족감,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아동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는 것이다.

취업모가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은 이와같이 타아의 영향과 가족의 영향으로 분리되어 수행되어 왔다. 아동학 분야에서는 타아 환경과 아동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가족학 분야에서는 주로 부인의 취업이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아동에 관한 생태학적 관점은 부모가 아동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부모와 아동이 상호 양방향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부모 외의 맥락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Belsky, 1984; Belsky, Lerner & Spanier, 1984; Gottfried & Gottfried, 1988).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 발달은 자신과 부모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가족을 둘러싼 부모의 직업적 환경 및 타아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보육시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과 가족에 관련된 환경을 함께 이해함으로써 보다 명료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아동 발달에 있어서 타아 환경과 가족 특성의 두 가지 변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들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서서히 발견되고 있다. Phillips, McCartney와 Scarr(1987)의 연구에 의하면, 타아 환경의 전반적인 질은 3~5세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의미 있게 예언하였으며, 특히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이 높고 아동-아동간의 상호작용이 낮을 때 사회성 발달이 증진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가족 변인이나 타아 경험 그 자체는 타아환경의 질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은 예언력을 보여주었다. 보육시설의 질적 우수성과 관련된 변인으로 미국에서 행해진 전국적인 규모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작은 집단 크기, 아동대 성인의 비율이 낮은 것, 교사의 비권위적인 양육태도와 더불어 안전하고 청결하며, 자극을 주는 물리적 환경이 일관성 있게 교사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6). 이처럼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관련된 탁아의 질과 구체적 측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관된 증거가 발견되고 있으나 탁아 경험과 가족 변인의 기여에 대한 결과는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다. 탁아 경험이 가족 변인이나 탁아의 질만큼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Kontos, 1991)도 있는 반면, 12개월 미만인 낮은 질의 탁아를 경험한 아동이 그 이후 탁아를 경험한 아동에 비해 유아기에 또래와 어려움을 겪고 적응에 문제를 갖는다는 결과(Howes, 1990)도 있다. 미국의 NICHD 연구결과(1997)에 의하면, 영아기의 탁아경험은 영아의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민감성과 보육시설의 질은 15개월 영아의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쳐, 가정에서나 보육시설에서 민감하지 못한 양육을 받은 영아는 불안정 애착의 비율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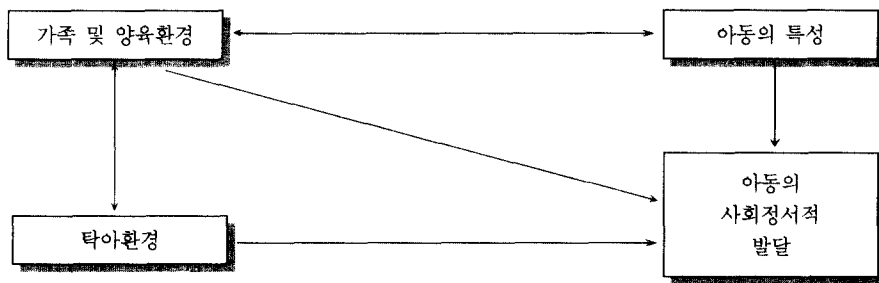
또한 아동의 발달 영역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르다는 것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 Kontos (1991)에 의하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는 탁아의 질적 수준이, 아동의 인지 및 언어 발달에는 가족배경 변인이 유의한 예언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 결과들의 일관성이 낮은 것은 가족 변인과 탁아의 질이 함께 상호작용 함으로써 어떠한 과정과 기제를 통해 아동 발달로 연결되는지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누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잘 통제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이 분야의 연구는 보육시설의 질적 측면과 아동발달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민송이, 1994; 신혜원, 1992; 전선옥, 1990; 황현주, 1991)와, 가정과 보육시설의 양육 환경을 비교한 연구(신은주, 1993; 이영·신은주·나중해, 1994, 1995)들이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질과 가족 변인을 함께 다룬 연구(양연숙·조복희, 1996)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더 많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탁아경험이나 가족변인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단순 효과모델에서 벗어나 아동의 탁아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 변인들과 아동 자신의 특성을 포함시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영향 관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즉 맞벌이 가족 내에서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아동 자신의 특성, 보육시설과 가족환경의 영향 등으로 생태학적 맥락 내에서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 모델을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이상의 개념적 모델에 근거하여 각각의 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아동 자신의 특성은 부모나 주위 사람의 반응, 그리고 상호작용 형태에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 발달에 영향



<그림 1> 연구의 이론적 모델

을 주는 변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아동의 성과 기질적 특성은 아동과 부모의 애착 안정성과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이정희, 1994; Jaeger & Weinraub, 1990), 타아의 영향을 증대하는데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연령 및 발달 단계도 성인으로부터 다른 반응을 이끌어 내므로 아동의 특성 중에서 중요시되고 있다(Belsky et al., 198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 특성 변인 중 연령, 성, 기질을 측정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 가족 및 양육환경 변인으로 맞벌이 가족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는 부부의 수입, 학력과 함께 남편과 부인의 결혼 만족도, 부부가 자녀 양육에서 느끼는 부모역할 갈등,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부인의 취업은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긍정적인(이선주, 1988; 정순현, 1987), 또는 부정적인(임정빈·이종숙, 1989; 정용재, 1986; 한남재, 1988)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우세한 편이다.

부부의 결혼 만족도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역할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Pederson과 Anderson, Cain(1977)에 의하면, 부부간의 갈등과 긴장은 부인의 어머니 역할, 특히 양육 능력과 부적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했으며, Price(1977)는 영아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어머니는 남편과 만족스런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Belsky, 1984, 재인용). 또한 부부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아버지 역할 수행의 수준이 높아서 두 변인간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으며(Belsky, Gilstrap, & Rovine, 1984), 남편으로부터 지원을 충분히 받은 어머니들이 영아에게 반응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나타낸다고 하였다(Cmic et al., 1983). 양육자의 반응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결과가 누적되어 있으므로, 이상의 연구들로부터 부부관계 또는 역할 긴장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되고, 양육행동은 다시 아동발달로 연결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Belsky et al., 1984).

마지막으로 타아환경 변인에는 보육시설의 구조

적 특성인 교사 경력, 집단 크기, 교사의 수, 현재의 보육시설에서의 근무 연수와 함께 프로그램의 질적 특성,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보육시설의 구조적 특성은 타아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시되며(Howes, 1990), 그 중에서 교사대 아동의 비율, 집단의 크기, 교사의 훈련과 안정성 등이 타아의 질에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한다(Howes, Phillips, & Whitebook, 1992; Phillips, & Howes, 1987). 프로그램의 질적 특성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일관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Kontos, 1991; Phillips, McCartney & Scarr, 1987).

본 연구에서 종속 변인인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은 아동자신의 지각과 또래의 관점을 함께 평가하기 위해 아동의 능력 및 수용에 대한 자아지각과 함께 또래집단으로부터의 긍정적 지명도와 부정적 지명도에 의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자신의 능력과 수용도에 대한 자아지각과 또래로부터의 수용 및 배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기여하며, 사회적 유능감은 유아기의 사회·정서 발달에 있어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이론적 근거와 개념적 모델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제기되었다.

1. 아동의 특성과 사회·정서 발달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는가?
2. 아동의 특성, 가족 및 양육환경, 타아환경은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아동의 특성, 가족 및 양육환경, 타아환경 변인이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시내 6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5~7세 아동 138명과 이들의 부모이다. 선정된 연구 대상은 5세 45명, 6세 84명, 7세 9명으

로 총 138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6.2세($SD=0.66$)이며, 남아가 82명, 여아가 56명이었다.

연구 대상 어머니들은 모두 취업모로서 평균 연령은 34.3세($SD=3.4$)이며, 대상 아버지들의 평균 연령은 37.3세($SD=3.6$)였다. 연구 대상 부모의 절반 이상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고 아버지의 65%와 어머니의 54%가 행정,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58%와 어머니의 30%가 200만원 이상의 월수입을 보고함으로써 연구 대상 가족은 대체적으로 중류에서 중상류 층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가족 및 양육 환경, 탁아 환경과 아동 자신의 특성이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개별 검사, 어머니와 아버지의 질문지 조사, 보육시설의 프로그램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아동을 대상으로 대학 및 대학원에서 아동학을 전공한 5명의 검사자가 1997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 까지 어린이집의 조용한 방에서 유아용 자아 지각 척도(이은혜·최혜영·김미혜, 1990)와 또래 지명 검사를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자녀 양육 행동, 결혼 만족도, 부모 역할 긴장, 아동의 기질,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어머니용 질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아버지의 결혼 만족도, 부모 역할 긴장,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아버지용 질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보육시설의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평정은 훈련된 관찰자들이 각 어린이집을 2일간 방문하여 관찰한 후 평정하였다.

3.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아동의 기질, 가족 및 양육 환경, 그리고 탁아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은 자아지각과 또래 지명

도로 평가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은 Harter(1984)의 도구를 수정한 이은혜, 최혜영, 김미혜(1990)의 유아용 자아지각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유아의 인지적·신체적 능력과 또래 및 어머니로부터 수용되는 정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척도는 24개의 문항과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 유아용 자아지각척도의 내적 일치도 Cronbach α 는 .87 이었다.

유아의 또래 지명 검사는 또래로부터의 긍정적 지명과 부정적 지명의 2가지로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각 반에 있는 모든 아동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 생일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 소풍갈 때 짝하고 싶은 친구(긍정적 지명), 그리고 싫어하는 친구, 생일에 초대하고 싶지 않은 친구, 소풍갈 때 짝하고 싶지 않은 친구(부정적 지명)를 각각 3명씩 지명하도록 하였다. 각 아동의 긍정적 지명과 부정적 지명 점수는 반 아동 수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각각 표준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아동의 기질

아동의 기질은 천희영(1992)의 유아용 기질 평정 척도로 측정하였다. 기질 평정척도는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에게 의뢰하여 각 문항이 자기 자녀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4단계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하위 척도를 추출하기 위해 공통 요인 분석에 의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응성(11문항, Cronbach $\alpha = .86$), 활동성(8문항, Cronbach $\alpha = .74$), 생리적 규칙성(4문항, Cronbach $\alpha = .75$), 반응성(6문항, Cronbach $\alpha = .67$)의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3) 가족 및 양육 환경

가족 및 양육환경은 부부의 결혼 만족도, 자녀양육행동, 부모역할긴장의 3가지로 측정하였다. 부부의 결혼 만족도는 Schumm과 동료들(1983)의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KMSS)를 수정한 정현숙(1997)의 RKMSS로 측정하였다. RKMSS는 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편과 아내를 대상으로 각

각 결혼 생활 전반, 배우자, 배우자와의 관계, 아버지(어머니)로서의 배우자에 대한 만족 정도를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편의 결혼 만족도에 대한 내적 일치도 Cronbach α 는 .90, 부인의 결혼 만족도 Cronbach α 는 .91 이었다.

자녀 양육 행동은 Slater와 Power(1987)의 PDI (Parenting Dimension Inventory)를 수정한 부모 양육 행동 질문지로 어머니가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질문지는 자녀 양육에 있어 어머니가 보이는 반응성(6문항, Cronbach α = .54), 양육적 행동(8문항, Cronbach α = .77), 일관성(7문항, Cronbach α = .70)을 6점 척도로 응답하는 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 전체의 내적 일치도 Cronbach α 는 .71 이었다.

부모역할로 인한 부부의 긴장을 측정하기 위해 Perlin과 Schooler(1978)의 부모긴장척도(Parenting Stress)를 이용하였다. 부모긴장척도는 Likert식 4점 척도로 9개의 항목(좌절감, 긴장감, 성공, 걱정, 괴로움, 불행, 정신적으로 지침, 만족, 자신감)에 대해 부모역할 수행에서의 긴장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역할 긴장에 대한 Cronbach α 는 .74, 아버지의 역할 긴장에 대한 Cronbach α 는 .71 이었다.

4) 탁아 환경

탁아환경은 보육시설의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평가와 교사면담, 부모의 보육시설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보육시설의 질적 평가는 이은혜와 이기숙(1996)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 간편형에 어린이집 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안전의 문항들을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는 일과 계획 및 상호작용(12문항), 교육과정(20문항), 물리적 환경(16문항), 영양·건강·안전(20문항), 운영관리(19문항)의 5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

보육시설의 질적 평가는 4년제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한 2명의 관찰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관찰자간 신뢰도 측정은 훈련된 2명의 관찰자가 어린이집 한 곳을 방문하여 10시간 동안 하루의 일과를 관찰한 후 평정한 것에 기초하였는데, 2명의 관찰자간에

92%의 일치도를 보였다. 관찰자들은 각 보육시설을 2회씩 방문하여 하루의 일과를 관찰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특성을 3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찰 후 원장을 면접하여 기관의 운영관리 측면과 함께 기관의 아동 수 및 교사 수, 전년도 이직 교사 수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교사를 대상으로는 학급의 아동 수 및 교사와 아동 비율, 교사의 학력 및 경력 등 프로그램의 구조적 측면에 대해 면접하였다.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 부모들의 만족정도를 알기 위해 시설과 환경, 교사의 질과 교육 방법에 대해 각기 7점 척도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평가하도록 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분석되었다.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자아지각, 또래지명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고, 성에 따른 차이는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계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각 변인들이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아동의 특성과 사회·정서 발달의 일반적 경향

대상 아동의 기질적 특성은 어머니의 보고에 기초하여 측정하였으며, 하위요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아동의 성에 따라 t 검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여아가 남아보다 반응성이 높으며 남아는 적응성과 활동성, 생리적 규칙성이 여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질의 하위요인별로 남녀 아동간의 성 차이에 대한 t 검증 결과, 활동성에서만 유의한 차이($t=4.65$)가 있었다. 즉 어머니들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활동적인 것으로 보

〈표 1〉 성에 따른 기질 요인별 평균과 t 검증 결과

기질	성	남 아 평균(SD)	여 아 평균(SD)	t 값
적응성		32.43(4.87)	31.05(5.28)	1.56
활동성		23.54(3.23)	20.98(3.11)	4.65*
생리적 규칙성		12.65(2.14)	12.39(1.86)	0.78
반응성		19.82(2.34)	20.16(2.19)	-.88

* $p < .0001$

〈표 2〉 성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 영역별 평균 및 t 검증 결과

사회정서 영역	성별	남 아 평균(SD)	여 아 평균(SD)	t 값
자아지각 총점:		84.2(10.6)	83.1(10.7)	.70
자아능력		43.3(5.3)	43.1(5.5)	.22
자아수용		41.0(6.3)	40.0(6.7)	.96
또래지명: 긍정적		-0.1(1.0)	0.1(0.9)	-.73
부정적		0.3(1.1)	-0.3(0.7)	4.24**

** $p < .001$

고하였다.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은 자아지각과 또래에 의한 지명의 2가지 검사로 측정하였다. 자아지각 검사는 자아 능력과 자아 수용의 하위 요인으로 점수를 산출하였고, 또래 지명 검사 결과는 학급별로 또래로부터 받은 긍정적 지명과 부정적 지명에 대해 표준 점수를 산출하였다. 두 가지 검사 결과에 대한 연구 대상 아동의 성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t 검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연구 대상 아동들은 자신의 인지 및 신체 능력에 대한 지각에서는 남아와 여아 모두 평균 43점, 자신이 어머니와 또래로부터 수용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평균 41점과 40점을 보여 주고 있다. 요인별 가능한 점수의 범위가 12~48점인 것을 참조해 보았을 때 아동들은 자신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지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지각에 있어 남녀에 따른 유의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같은 학급의 또래들로부터의 인기도를 측정하는 긍정적 지명은 표준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 남이는 -0.1, 여아는 0.1의 점수를 보여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로부터 더 긍정적으로 지명을 받았으나 유의 있는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또래로부터의 부정적 지명에 있어서 남이는 0.3 여아는 -0.3의 점수를 받았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아가 여아보다 또래로부터 더 많이 배척받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아동의 특성, 가족 및 양육환경, 탁아환경과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과의 관계

1) 아동의 특성과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영역간의 관계

아동의 특성과 사회·정서 발달 영역간의 관계를

〈표 3〉 아동의 성, 연령, 기질과 사회·정서 발달간의 상관계수

(N=129)

	1	2	3	4	5	6	7	8	9
1. 아동의 성	1.00								
2. 연령	.06	1.00							
3. 기질/적응성	-.13	-.12	1.00						
4. /활동성	-.37***	-.13	.25**	1.00					
5. /생리적 규칙성	-.04	-.04	.21*	-.02	1.00				
6. /반응성	.07	.07	.12	.30***	.08	1.00			
7. 자아지각	-.13	-.17*	.01	.19*	.02	.04	1.00		
8. 부정적 지명	-.26**	-.18*	.10	.14	.05	-.06	.11	1.00	
9. 긍정적 지명	.06	.05	-.13	-.15	.12	.10	.00	-.15	1.00

* $p < .05$ ** $p < .01$ *** $p < .001$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아동의 특성인 성, 연령, 기질은 사회·정서 발달의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었다. 아동의 성은 또래에 의한 부정적 지명과 유의한 상관($r=-.26$)이 있어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다. 아동의 연령은 자아지각($r=-.17$), 부정적 지명($r=-.18$)과 유의한 부적 상관으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기질의 특성 중 활동성은 자아지각($r=.19$)과 정적 관계가 있어 활동적인 아동이 자신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2) 맞벌이 가족의 특성 및 양육 행동과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족 환경 특성으로 부부의 수입, 학력, 남편과 아내의 결혼 만족도와 어머니의 양육 행동, 부부가 자녀양육에서 느끼는 부모역할 갈등 정도를 살펴보았다. 가족환경 특성, 양육 행동 및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변인간의 상관계수 및 각 변인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맞벌이 가족의 특성과 양육 행동은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제 영역의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아동의 자아지각은 어머니의 부모역할갈등($r=-.27$)과 부적의 상관이 있었다. 아동의 또래에 의한 부정적 지명은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r=-.18$),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 행동 중 반응성($r=-.20$)과 부적의 관계가 있었다. 즉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은 어머니의 심리적 만족 및 양육 행동과 관계가 있어, 어머니가 부모역할로 인한 갈등이 클수록 아동은 자신에 대해 낮게 평가하였고, 또한 어머니가 결혼관계를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녀의 행동이나 요구에 대해 반응적이지 못할수록 같은 반의 또래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탁아환경과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 관찰된 6개 보육시설의 질적 측면을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이은혜·이기숙, 1996)로 평가한 결과, 일과계획, 교육과정, 물리적 환경, 영양/건강/안전, 운영관리의 5개 하위영역과 총점에서 어린이집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표 4> 가족의 특성, 양육방식과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간의 상관계수

(N=12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결혼만족도(부)	1.00												
2. 결혼만족도(모)	0.37***	1.00											
3. 부모역할갈등(부)	-0.38***	-0.17	1.00										
4. 부모역할갈등(모)	-0.05	-0.23**	0.15	1.00									
5. 소득	0.17	0.13	-0.09	-0.11	1.00								
6. 부 교육수준	0.10	-0.01	-0.05	-0.04	0.24	1.00							
7. 모 교육수준	0.14*	-0.07	-0.13	0.01	0.29**	0.78***	1.00						
8. 양육적 행동	0.09	0.27**	-0.12	-0.15	0.04	0.13	0.11	1.00					
9. 양육 일관성	0.05	0.17*	0.02	0.03	-0.03	0.01	0.08	0.51***	1.00				
10. 양육 반응성	0.12	0.22**	-0.02	-0.02	-0.02	-0.14	-0.16	0.49***	0.22**	1.00			
11. 자아지각	-0.07	0.11	0.08	-0.27**	0.03	-0.00	-0.16	0.07	-0.01	-0.00	1.00		
12. 부정적 지명	-0.07	-0.18*	0.08	0.09	-0.14	0.02	-0.02	-0.14	-0.11	-0.20*	0.10	1.00	
13. 긍정적 지명	-0.02	0.15	-0.11	-0.08	0.03	-0.05	-0.01	0.15	0.14	0.04	-0.05	-0.16	1.00
평균	22.5	19.9	20.6	22.6	6.8	5.7	5.3	32.8	30.8	28.9	83.3	0.0	0.1
표준편차	4.0	4.6	3.5	3.7	2.4	1.0	1.1	4.8	5.1	2.8	10.6	0.9	1.0

* $p<.05$ ** $p<.01$ *** $p<.001$

<표 5> 탁아환경과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1. 탁아의 질(총점)	1.00							
2. 탁아만족도(부)	.21**	1.00						
3. 탁아만족도(모)	.32***	.45***	1.00					
4. 교사의 수	.64***	.18*	.17*	1.00				
5. 교사 근무 년수	-.14	-.13	-.21**	.27***	1.00			
6. 자아지각	.01	.03	.04	.09	.01	1.00		
7. 부정적 지명	-.24**	-.03	-.07	-.28***	-.02	-.08	1.00	
8. 긍정적 지명	-.08	.03	-.01	-.07	.05	.12	-.01	1.00

* p<.01 ** p<.01 *** p<.001

에서는 보육시설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육시설의 전체적인 질적 수준을 나타내주는 총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탁아환경의 제반 변인들과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영역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탁아 환경과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영역 중에서 또래에 의한 부정적 지명만이 탁아의 질 총점($r=-.24$)과 그리고 교사의 수($r=-.28$)와 유의한 부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다른 사회·정서 발달 영역과는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다. 즉 전반적인 보육시설의 질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급의 교사 수가 적을수록 아동들간에 또래로부터 배척 당하는 정도가 높았다.

한편, 관찰자에 의해 평가된 탁아의 전반적인 질 총점은 아버지의($r=.21$)와 어머니의 탁아 만족도($r=.32$)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교사의 수는 탁아의 전반적 질($r=.64$), 그리고 부($r=.18$)·모($r=.17$)의 탁아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높고 교사의 수가 많을수록 부모들의 탁아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프로그램의 질과 교사 수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아동의 특성, 가족 및 양육환경, 탁아환경 변인의 영향력

아동의 자아지각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하였다. 아동의 특성(성,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변인의 선택은 stepwise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변인선택 기준은 유의도 0.15 수준에서 선택하였다. 아동의 자아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아동의 성과 연령은 아동의 자아지각을 4% 설명해주며, 어머니의 부모역할갈등이 추가됨으로써 아동의 자아지각 총 변량의 11%를 설명하였다. Model 2에 의하면 아동의 연령과 어머니의 부모역할갈등이 아동의 자아지각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양육에서 느끼는 부모역할갈등이 적을수록 아동은 자신이 유능하며 사회적으로 수용된다고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역

<표 6> 아동의 자아지각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 인	Model 1		Model 2	
	b	β	b	β
아동의 성	-2.34	-.05	-2.31	-.12
아동 연령	-2.38	-.17*	-2.67	-.18*
어머니 부모역할갈등			-.78	-.26**
절 편	101.55		120.70	
R^2		.04*		.11**
R^2 의 증가량				.06*

* p<.05 ** p<.001

할것들은 아동의 자아지각에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어머니가 양육에서 느끼는 긴장감, 좌절감, 걱정 등의 태도가 아동의 자아지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이 또래들로부터 받는 긍정적 지명과 부정적 지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긍정적 지명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동이 또래로부터 받은 부정적 지명을 종속 변인으로 한 단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아동의 또래에 의한 부정적 지명점수는 아동의 특성에 의해 9%의 변량이 설명되며, 가족환경과 타아환경이 변인이 6%의 변량을 추가로 설명하였다. 특히 아동의 특성은 동료에 의한 부정적 지명 점수의 가장 많은 변량을 설명하였다. Model 2에 의하면, 아동의 성과 연령, 어머니 양육행동 중 반응성과 학급의 교사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그리고 어린 아동보다는 나이가 더 든 아동이 또래로부터 더 많이 배척되며, 어머니 양육방식의 반응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수가 적을수록 아동이 또래로부터 배척되는 정도가 증가하였다.

<표 7> 또래에 의한 부정적 지명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 인	Model 1		Model 2	
	b	β	b	β
아동의 성	-.55	-.28***	-.46	-.26**
아동의 연령	-.16	-.11	-.23	-.17*
기질의 반응성			.03	.07
양육의 반응성			-.06	-.20*
학급의 교사 수			-.31	-.21**
아버지의 타아만족도			.05	.13
절 편	1.76		3.49	
R^2		.09***		.15***
R^2 의 증가량				.06**

* $p < .05$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논의하고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아동의 특성과 사회·정서 발달에 관련된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의 기질 특성 중 활동성과 또래에 의한 부정적 지명 점수에서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남아의 활동성이 여아보다 높은 것으로 어머니들은 보고하였다. 이는 유아기 남아들이 신체적으로 보다 활동적이며 능동적이라는 기질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남아의 부정적 지명 점수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남아들이 또래로부터 더 많이 배척받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 다음 연구문제에 관련된 결과로서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과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성과 연령은 아동의 자아지각 및 부정적 지명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아동의 자아지각과 부정적 지명은 연령 증가에 따라 낮아지며, 또래에 대한 부정적 지명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다. 아동의 자아지각이 연령 증가에 따라 낮아지는 것은 이 단계에서 보다 객관적인 준거에 의해 아동의 자기 평가 능력이 증진되는 것과 관계가 있으며, 이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도 지지되고 있다(이은혜·최혜영·김미해, 1990; Harter & Pike, 1984).

둘째, 아동의 기질 특성 중에서는 활동성이 자아지각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기질적으로 활동적인 아동이 자아능력이나 사회적 수용도를 높게 지각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아동의 활동성은 신체적 능력과 자신감을 어느 정도 동만한다고 보며, 이러한 성향이 자아지각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아지각 척도의 한 요인이 신체적 능력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셋째, 가족의 특성 중에서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와 양육의 반응성은 또래의 부정적 지명과, 어머니의 부모역할 갈등은 아동의 자아지각과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 양육에서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아동은 또래로부터 부정적 지명을 덜 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머니가 부모역할에서 갈등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지각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의 결혼 만족도나 역할 갈등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가족 내에서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심리적 행복감이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이 변인이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부부간의 갈등과 긴장은 어머니 역할, 특히 양육 행동과 부적 관계를 갖는다는 Pederson 등(1977)의 연구와 영아에게 온정적인 어머니가 남편과 만족스런 관계를 갖는다는 Price(1977) 연구가 이 결과를 지지해 준다. 나아가 본 연구의 자료는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와 역할 갈등이 아동의 또래 관계 및 자아지각과 관련됨을 발견함으로써 가족 기능이 아동의 발달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타아환경과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간의 관계는 타아의 전반적 질, 그리고 교사 수와 아동의 부정적 지명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교육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사가 많을수록 아동이 싫어하는 친구로 지명되는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프로그램의 질과 사회적 능력간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관된 것이다(Phillips, McCartney & Scarr, 1987). 여기서 교사 수가 아동의 부정적 지명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온 것은 타아의 전반적 질이 교사 수와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r = .64$)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는 종속 변인인 아동의 자아지각과 또래 지명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에 관한 것이다. 먼저 자아지각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의 부모역할 갈등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의 효과도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가 양육자로서 긴장과 갈등을 적게 느낄수록 그리고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동의 자아지각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상관분석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어머니가 양육에서 얼마나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가 하는 것이 어머니-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 관계를 통해 아동의 자아 능력과 또래 및 어머니로부터의 수용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해석된다. 이점은 다른 연구(이은혜, 1997)에서도 어머니가 양육 과제를 쉽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발견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 행동 못지 않게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느낌과 지각이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 다음 아동의 또래 지명에 대한 결과에서는 부정적 지명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또래간의 부정적 지명, 즉 또래간의 배척은 집단 경험에서 또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긍정적 지명, 즉 인기도에 비해 본 연구에서 보다 민감한 측정치로 생각될 수 있다. 또래간의 부정적 지명은 아동의 특성에 의해 9%의 변량이 설명되었고, 가족과 타아 환경도 6%의 변량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아가 여아보다,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또래에 의해 부정적 지명이 높았으며, 어머니 양육의 반응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급에 교사수가 적을수록 아동의 또래에 의한 부정적 지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또래간의 배척이 아동의 특성에 의해, 특히 성과 연령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특성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남아들이 기질적으로 활동적이며 공격성에서 여아보다 높다는 점이 또래간 배척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린 연령의 아동이 부정적 지명이 높은 것은 성숙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어린 연령에서 연령에 따른 성숙의 차이가 크며, 혼합 연령일 경우 이 차이는 더 커질 수 있다. 미성숙한 아동은 집단 생활에서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행동 방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또래간 유능한 행동을 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아동의 또래간 부정적 지명은 어머니의 양육 방식 중에서 반응성과 학급의 교사 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 및 타아 환경도 아동의 또래 관계에 기여한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어머니의 반응적인 양육방식은 권위 있는(authoritative) 양육의 대표적인 특성으로서 아동의 생각과 느낌에 민감하게 반응해 줌으로서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 통제능력을 키워주고 사회적으로 유능

한 행동을 습득하게 한다(Belsky, Lerner, & Spanier, 1984). 따라서 이러한 양육 방식을 경험한 아동이 부정적 또래 지명도에서 낮은 결과를 갖게 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학급의 교사 수는 본 연구에서 교육프로그램의 전반적 질과 높은 상관($r = .64$)을 보였으므로, 교사의 수가 직접적으로 교사-아동간의 상호작용 기회를 높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프로그램의 전반적 수준이 높은 것이 또래간의 부정적 지명을 감소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기에 앞서 몇 가지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이 된 보육 시설은 임의 표집에 의해 선정되었으므로 일반 보육시설을 대표하지 못한다. 둘째, 아동의 또래 지명 검사는 성에 의해 편파된다는 점이 선행연구들의 결과로 보고되어왔으나 학급의 크기와 연령대상을 고려할 때 지명 대상이 너무 작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성별로 분리하지 못하였다. 셋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별도의 봉투를 제공해 질문지를 각각 회송하도록 배려는 했으나, 한 가정에서 부모의 응답이 서로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5세~7세 보육시설을 경험하고 있는 남아가 여아보다 기질 면에서 활동적이고 또래로부터 배척받는 정도가 높다.
- 2)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동은 또래로부터 배척을 덜 받는다.
- 3) 아동의 자아지각에 영향력 있는 변인은 어머니의 부모 역할 갈등과 아동의 연령이다.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역할 갈등이 낮고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동의 자아지각은 긍정적이다.
- 4) 아동이 또래로부터 받는 배척에 영향력 있는 변인은 아동의 성, 연령,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 그리고 학급의 교사 수이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 양육의 반응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교사수가 적을수록, 아동의 또래에 의한 부정적 지명은 높아진다.

■ 참고문헌

- 1) 민송이(1994). 탁아교사의 언어유형에 따른 아동의 놀이실 행동.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 박경자(1992). 영유아기 타인 양육이 학령전 어린이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3(2), 217-228.
- 3) 신은주(1993). 가정과 보육시설에서의 유아-양육자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4) 신혜원(1992).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아동의 놀이실 행동.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5) 양연숙·조복희(1996). 탁아기관의 질, 탁아 경험 및 가족 특성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181-194.
- 6) 이선주(1988). 기혼 여성의 결혼관과 그와 관련된 결혼 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7) 이 영·신은주·나종혜(1994).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심태학적 연구(1). 아동학회지, 15(2), 37-54.
- 8) 이 영·신은주·나종혜(1995).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2). 대한가정학회지, 33(3), 165-177.
- 9) 이은혜(1997).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자녀양육에 대한 난이도 지각과 아동의 발달. 대한가정학회지, 35(3), 31-45.
- 10) 이은혜·최혜영·김미해(1990). 아동의 사회적 능률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논집, 4, 175-189.
- 11) 이은혜·이기숙(1996).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 교사를 위한 활용지침서. 청삼 아동 연구시리즈 9권. 서울: 창지사.
- 12) 이정희(1994). 취업모와 자녀간 애착안정성과 관련 변인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13) 임정빈·이종숙(1989). 확대기 가정 부부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3),

- 117-132.
- 14) 전선옥(1990). 유치원의 교사-유아 상호작용 및 물리적 환경의 질에 따른 유아행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5) 정순현(1987). 취업 여성과 비취업 여성의 부부 역할 인지와 결혼 만족도.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6) 정용재(1986).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결혼 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7) 정현숙(1997). 맞벌이 가족의 부모역할 긴장과 부부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5), 151-162.
 - 18) 천희영(1992). 한국 아동의 기질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19) 한남재(1988). 한국 도시부부의 적응에 관한 일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여성연구, 16, 19-35.
 - 20) 황현주(1991). 유아교육기관의 질과 유아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1)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 83-96.
 - 22) Belsky, J. (1986). Infant day care: A cause for concern? *Zero to Three*, 6(5), 1-9.
 - 23) Belsky, J. (1988). The effect of infant day care reconsidere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235-272.
 - 24) Belsky, J., Gilstrap, B., & Rovine, M. (1984). Stability and change in mother-infant and father-infant interaction in a family setting: One-to-three-to-nine months. *Child Development*, 55, 692-705.
 - 25) Belsky, J., Lerner, R. M., & Spanier, G. B. (1984). *The child in the family*. New York: Random House.
 - 26) Belsky, J., & Rovine, M. J. (1988). Nonmaternal care in the first year of life and the security of infant-pare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157-176.
 - 27) Clark-Stewart, A. (1989). Infant day care: Malignant or maligned? *American Psychologist*, 44, 266-273.
 - 28) Crnic, K. A., Greenberg, M. T., Ragozin, A. S., Robinson, M. N., & Basham, R. B. (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 209-217.
 - 29) Gottfried, A. E., & Gottfried, A. W. (Eds.) (1988).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 Longitudinal research*. New York: Plenum Press.
 - 30) Harter, S., & Pike, R. (1984).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969-1982.
 - 31) Hoffman, L. W. (1984). Maternal employment and the young child. In M. Perlmutter (Ed.), *Minnesota symposium in child psychology* (Vol. 17, pp. 101-127). Hillsdale, NJ: Erlbaum.
 - 32) Holloway, S. D., & Reichhart-Erickson, M. (1989). Child care quality, family structure, and maternal expectations: Relationship to preschool children's peer relation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0, 281-298.
 - 33) Howes, C. (1990). Can the age of entry into child care and the quality of child care predict adjustment in kindergart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2), 292-303.
 - 34) Howes, C., Phillips, D. A., & Whitebook, M. (1992). Thresholds of quality: Implications for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center-based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3, 449-460.
 - 35) Jaeger, E., & Weinraub, M. (1990). Early nonmaternal care and infant attachment: In search of process. In K. McCartney (Ed.), *Child care and maternal employment: A social ecology approach, New direction for child development*, 49, 71-90. San Francisco: Jossey-Bass.
 - 36) Kontos, S. (1991). Child care quality, family background, and children's developmen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 249-262.

- 37) Lerner, J. V. (1994). Working women and their families.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38)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6). Characteristics of infant child care: Factors contributing to positive caregiv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 269-306.
- 39)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Results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8(5), 860-879.
- 40) Park, K., & Honig, A. S. (1991). Infant care and later teacher ratings of preschooler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68, 89-96.
- 41) Pederson, F., Anderson, B., & Cain, L. (1977). An approach to understanding linkages between the parent-infant and spouse relationship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New Orleans.
- 42) Perlin, L.,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43) Phillips, D., & Howes, C. (1987). Indicators of quality in child care: Review of research. In D. Phillips (Ed.), *Quality in child care: What does research tell us?*(pp. 1-20). Washington, DC: NAEYC.
- 44) Phillips, D., McCartney, K., & Scarr, S. (1987). Childcare quality and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3(4), 537-543.
- 45) Price, G. (1977). Factors influencing reciprocity in early mother-infant interaction.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New Orleans.
- 46) Slater, M.A., & Power, T.G. (1987).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parenting in single-parent families. In J. P. Vincent(Ed.), *Advances in family interaction, assessment and theory*(Vol. 4, pp. 197-228). Greenwich, Conn: JAI.